

이동해, 김은희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5월 21일 주일에는 우간다에서 17년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동해, 김은희 선교사님 부부가 디딤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말씀을 나눠주시고 예배 후 교제 시간에는 우간다 선교 나눔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일이 사소한 것이 하나 없고 모두 다 귀중하고 복된 것이기에 기도가운데 디딤돌 식구들에게도 방문하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도 모두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소개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렸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디딤돌 식구들과 같이 나눕니다. 읽어 보시고 만남을 기대하며 한달동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분과 가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신대 신학과와 유아교육과 선후배로 만나서 25년째 살고 있고, 대학원재학 큰아들,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나요? 계기가 있으셨다면 소개해 주세요

- 남편은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서 '선교한국'이라는 집회를 통해 선교사로 서원을 했고, 아내는 선교에 대해 전혀 마음이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부목사로 사역하며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선교사로 서원 했을 때가 다시 생각이 나서 아내와 기도 가운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에는 언제 가셨고 왜 우간다를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 2006년 6월 30일에 우간다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 받기 전에 2005년에 우간다로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간다에 선교사가 많이 없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간다에 왔습니다.

우간다에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 어린이 교육사역(학교운영), 신학교 강의사역, 지방목회자 훈련 및 교회 지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같이 올려 놓은 선교 보고 영상과 글을 참고해 주세요)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장 보람있었던 일과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소개해 주신다면...

- 학생이었던 목회자나 함께 했던 교사가 자신의 고향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오랜만에 그 지역에서 만났을 때 생활을 너무나 잘 하고 있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고마워 할 때가 보람을 느낍니다. 또 어린이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학교에서 너무나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려웠던 시간은 너무나 많은데..... '가장'이라는 말을 붙인다면, 어린 두 아들(초등학교 때)을 기숙사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지켜 봐야만 했을 때, 이렇게까지 선교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ㅋㅋ

가장 최근에 가지고 계신 기도제목이 있으시다면

-저희 최근 선교소식을 참고해 주세요^^

사역하시는 일에 디딤돌 교회가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매월 선교소식을 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 교회에서 우간다를 위해 바자회를 하거나, 기도하는 소식을 전해 주세요.
- 단기 청년이나 팀을 보내주세요. 선교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방문하는 사람이나 선교사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미국 여행의 일정과 기도제목이 있으시다면

- 미국은 처음 방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4년만에 만납니다. 5월 2일에 미국 도착하여 둘째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고 일주일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4식구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안전한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 미국이 참 넓은 나라더군요. 여기저기 다니고 싶지만 비행기로 다녀야 해서 꼭 필요한 만남만을 하기로 결정하고 정한 것이 보스톤과 뉴욕 방문입니다. 만나는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 나머지 시간은 큰 아들이 머무는 클리브랜드에서 지내다가 5월 29일에 다시 우간다로 돌아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쉼과 충전이 되어지고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디딤돌 교회 식구들에게 한 말씀

- 큰 일 나셨습니다!

선교사를 한번 만나면 평생 기도해 주셔야 하거든요.

귀한 만남을 기대합니다.